

약속에 대한 약속 (출애굽기 24:1-11)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오늘 약속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언약의 피이다. 내가 한 이 모든 약속에 대하여 내가 나의 피로 약속한다는 뜻이다. 십자가의 보혈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원죄를 당한 인간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한다. 잘못하면 괴물처럼 들릴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성도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원죄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고 반드시 저주가 온다.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셨다. 그게 언약이다. 그리스도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 그 피를 백성과 하나님이 둘을 나누었다. 이 언약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원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셨다. 이것을 답으로 잡지 않으면 믿어도 사실은 방황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 할 일은 단 하나이다. 이 답에 답 나는 것이다. 아니면 무조건 해매게 되어 있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니게 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잡고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하기 바란다.

언약을 잡고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처럼 응답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과 관련된 말씀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렘넌트 7명이 이에 대한 증인이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누구든지 이 시간표를 누릴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삼십이근본문제 3가지를 해결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답으로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답을 가진 사람도 찾기 쉽지 않다.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살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지난 주, 간음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를 봤다. 예수님은 힘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죽을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으로 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평범한 말이지만 이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말에 꽃혔다. 그 상황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정리되고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권세가 있다.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구체적인 답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간단하면 더 좋다. 나는 우리가 쓰는 언약기도가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제법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기도를 쓴 지 8-9년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응답도 많고 크고많은 응답중에 눈도 많이 열렸다. 목회 때문에 너무 어려워 힘들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많이 살았다. 안 그랬으면 죽었을 런지도 모른다. 많은 영적인 승리와 깨달음이 있었다. 어려웠던 교회도 분위기가 살아나고 남미 선교의 문도 열리고 하였다. 그 때 저는, 혼자 생각해, 만일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마음대로 안되었다는 것이다. 아주 힘들었다. 한 해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 올해는 50명만 부흥시켜 주세요. 1월달부터 기도했다. 그런데 될 것 같았다. 믿음도 생기고. 왜 그런가 보니 가만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면 50명은 될 것 같았다. 10월까지 진짜 기도했는데 한명도 부흥 안되었다. 그래서 10월에 30명으로 바꿨다. 하나님 올해 30명만 부흥되게 해주세요. 12월 31일까지 기도했다. 왜냐면 그 다음에 1월 1일날 서른명 오면 되니까. 전능하나님이잖아요. 아무도 안 왔다. 교회는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다가 언약기도를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는데 2년 후부터 바뀌기 시작하였다. 개인과 함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그 때는 교회 재정도 힘들어서 재정 장로님이 여기저기서 돈 빌릴때도 많이 있었다. 지금은 남는다. 역전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것과 함께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다. 어느날부터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러지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하면 입에서 동동 뜨고

말았다. 어느날 그냥 예고도 없이 되기 시작하였다. 진짜 놀랐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 때 굉장히 힘을 얻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누러지고, 이것은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이 내 평생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라고 있는데 부활 메시지가 언약으로 들어왔다. 너무나 감사했다.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이었다. 부활 메시지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16-20절이다. 주어진 단어는 제자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15-20절, 주된 단어는 치유이다. 요한복음 21장 단어는 렘넌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 복음을운동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237, 치유, 서밋이 이 부활메세지에서 다 나왔다. 세계 복음화 다 말씀하시더니 237, 치유, 서밋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믿는다. 우리 교회에 분명 제자 일어선다. 수많은 다민족 제자, 렘넌트 제자, 일어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필요없다. 언약잡고 고백하면 된다. 치유의 기적도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참 렘넌트 운동 반드시 일어날 것 믿는다. 237, 선교운동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남미 끝까지 갈 것을 믿는다. 전에도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약간 가짜였다. 이제 다르다. 그리고 내 인생도 이것을 잡고 살 것이다. 그리스도와 부활 메시지 4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살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온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내게도 주신 내 언약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237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공간 초월,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간다고 생각한다. 보좌의 축복, 이 언약 잡고 누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되든지 안되든지 나는 하루에 한번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되어지는 날이 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다. 되고 안되고는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주셨다. 무엇으로 약속했는가 하면 피로 약속해주셨다. 생명으로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원죄를 당한 인간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답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안 살고 있는 것은 속은 것이다. 그리고 손해를 많이 본다. 되고 안되고는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하는 것이다. 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약속에 대한 약속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피의 의식이다.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전부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청년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6절에 보니 그 때 나오는 피를 반으로 나누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보관을 했다. 그리고 나서 7절,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에게 읽어 주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반 남겨뒀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 때 뭐라 했냐면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였다. 이것이 본문의 포인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피로써 약속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보면 지도자 모세, 제사장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인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본래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봐도 죽음을 면하는 것,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것이 언약이다. 이들은 언약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나의 피로 약속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

가의 보혈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표현이다.

창세기 15장 잘 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가지 약속했다. 첫째는 큰 민족이었다. 아들이 없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다. 두 번째는 이 땅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알겠냐고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 세종류를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찢겠다. 그 짐승을 찢개놓고 기다렸더니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본래는 약속하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오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이다.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너는 죽을 일이 없다. 오히려 누리고 내게 100% 영광 돌리라는 것이 메시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언약의 피이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의 피 안에 있다. 이 언약의 피를 누리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성취되기 원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는다. 방법이 무엇인가? 이 언약의 피를 언약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 주신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문을 여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인생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방법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꺾 것이다. 이 언약의 피에 오직하면 유일성의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계속 올 수도 있다. 당연히 재창조의 기적이 내 인생중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언약으로 딱 잡아야 한다. 누리면 237 온다. 시공간 초월이 여기에 있다. 보좌의 축복은 이 피를 벗어나서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 한 개 뿐이다. 그 한 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발견

발견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순간을 말한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발견해야 한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발견해야 한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모르는것보다 낫지만 역사는 안 일어난다. 발견이라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화이다. 개인화가 되지 않고는 아직도 사실은 밖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전 보다도 더 큰 응답 받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다 아는데? 그게 바로 고백하는 것이고 써보는 것이다. 사실은 왕도가 없다. 사실은 왕도가 없다. 그리스도 누리며. 내 경험으로만 이야기 하면 그렇다. 듣고만 있어서는 뭔가가 땅에 붙지를 않는다.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하고 예배를 예사로 드리면 안된다. 한마디를 해도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 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다. 말씀을 듣고는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출발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정리를 해가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어느날 그리스도가 진짜 깊이 누리지고 거기서 모든 답을 얻겠다는 소원이 있으면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출발을 해야 한다. 예배보다도 다른 것이 앞서 있으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언약을 누리는 답이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 있으면 안된다. 그건 틀렸다. 잘 알고 있고, 훈련 많이 받아도 안된다. 제거해야 한다. 모든 예배에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크고 권세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쫓아라. 방해하는 모든 저주 세력을 쫓아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진보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든지 안되든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한다. 그 때 기도 잘 안되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써라. 그리고 그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써라. 처음 신

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사역자에게 기도문을 받아서 매일 써라. 내가 언약기도를 쓰면서 내가 24시 되면 오히려 내가 언약기도를 쓰는게 나에게 방해가 될거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깊은 고백은 쓰는것보다 더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때쯤 되면 쓰는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될거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아직 24시는 아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루에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잡을때에는 나름대로 나도 이제 기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 며칠 안 써봤다. 그러니까 편했다. 보통 한시간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기도가 하루에 한번은 해야 한다는 짐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안하니까 편했다. 그런데 한 이를 사할 지나가니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쓰기 시작했다. 그 때 새로 하나 깨달았다. 깊은 고백은 깊은 고백이고, 내가 한자 한자 꼭꼭 심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내게 계속 심어야 한다. 사단은 교묘하다.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내가 평생 쓰는 것이라고 결론이 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체험을 주시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그 시간에 언약기도너무 낡은 것 같으면 반 줄여서 써라. 아니면 다른 말씀 은혜 되는 것 있으면 그거 써라. 깊이 기도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다. 우리는 류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깊은 기도가 이해된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미국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언약이 내것이 되어야 한다.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잡으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출발이다. 그리고 기도를 한마디 해도 깊은 기도는 다음 문제이고 진심으로 하는 정해진 시간이 하루에 한번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한다. 사실은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것을 고백할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난다.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먼저거나 하면 다 속은 것이다. 나는 주신 두가지 메시지가 내 신앙의 근본이고 중심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게도 이런 중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고백한다. 나는 전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었다. 내 수준이었을 것이다. 상상은 했어도 이해는 안되었었다. 그냥 뭐 뜻을 정한 것, 그것은 아닐건데 이해가 잘 안되었었다. 나는 이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드릴 마음이 있다. 전에는 왜 안되었는가? 사단에게 막혀서 안되었었다. 이 사단이 깨져야 하는데 살아 있어서 안되었었다. 한자 해도 한번씩 흥분될 때 나왔지, 그것은 내것이 아니고 공중에 뜬 것이었다. 이제는 그 때와 다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진짜 누리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진짜 떠나게 된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다. 나는 이것으로 24시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는다. 하루 딱 24시 되고 가버렸다. 나는 맛보기로 보여주셨다고 믿고 있다. 노력은 안한다. 마음에 잡고 있지. 25시에 이를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응답받은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 응답 조그만한거 받아도 시공간 초월이다. 그러나 이런거 표현하려고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24시, 25시가 되어지는 사람이 느끼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해야 할 일, 하나 있다. 그리스도를 다시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지속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부분이 발견하게 된다. 나는 처음에 훈련 받을 때 평생 기도제목 나왔을 때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십몇년전이다. 내가 늘 평생동안 기도할 그 제목 말고, 그게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되므로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 언약되기 바란다. 영권 살아날 것이고 응답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한다. 인생에 눌러 있는게 아니라 정복하고 이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복음이 출발이니까. 바른 복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